SU-A24

유지 혈액 투석 환자에서의 우울증의 빈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[1], 신경정신과학교실[2], 보라매병원 내과[3]
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[4], 서울대학교 신장연구소

박혜인조[1] · 윤현배[1] · 이하정[1] · 한승석[1] · 손민정[1] · 정은숙[1] · 주권욱[1]
임춘수[3] · 채동완[4] · 안규리[1] · 한진석[1] · 김성권[1] · 함봉진[2] · 오윤규[3]

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Maintenance Hemodialysis Patients

Hayne Cho Park[1], Hyun-Bae Yoon[1], Hajeong Lee[1], Seung Seok Han[1], Min-Jeong Son[1]
Eun Sook Jung[1], Kwon Wook Joo[1], Chun Soo Lim[3], Dong-Wan Chae[4], Curie Ahn[1]
Jin Suk Han[1], Suhnggwon Kim[1], Bong-Jin Hahm[2] and Yun Kyu Oh[3]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[1]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Department of Psychiatry[2], Seou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[3], Boramae Hospital,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[4],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
Seoul National University Kidney Research Institute

목 적 : 투석방법의 개선과 보존적 치료법의 발전으로 혈액투석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간 투석으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. 본 연구는 유지 혈액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유병율 및 삶의 질의 척도를 조사하여 이들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 법 :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병원 및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유지 혈액 투석 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설문 조사 및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. 의무기록을 통해 기본인적 사항 및 투석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혈액 검사 중 **albumin, cholesterol, hemoglobin** 수치를 통해 환자의 **nutritional status**를 평가하였다. 동반 질환에 대해서는 **modified Charlson comorbidity index**를 이용하여 **comorbidity score**를 계산하였다. **K- BDI**를 사용하여 우울증 여부를 평가하고 **KDQOL- SF** 설문지를 통하여 삶의 질에 대해 평가하였고, **PCS (Physical Component Summary), MCS (Mental Component Summary), KDCS (Kidney Disease Component Summary)**로 점수화하였다. 이상에서 얻은 인구통계학적인 자료 및 우울증의 정도,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 및 **student t- test,** 선형회귀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결 과 : 총 **55**명의 환자 중 남자가 **61.8%**였고 평균 연령은 **61.7**세였다.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은 기간은 평균 **6.4**년이었으며,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이 전체의 **32.7%**였다. **K- BDI**로 측정한 우울증의 유병율은 전체 환자의 **27.3%**였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**(p=0.428)**. **60**세 이상의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**6.36**배 우울증이 많았으며 **(p<0.05), comorbidity score**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우울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**(p=0.089)**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거의 없었다. 인구통계학적인 인자로는 유일하게 연령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**KDCS** (기울기 **- 0.39, R2=0.131, p<0.05**) 및 **PCS** (기울기 **- 0.5, R_2=0.082, p<0.05**)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우울증과 삶의 질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**K- BDI score**가 클수록 **KDCS** (기울기 **- 0.625, R2=0.189, p<0.05**), **PCS** (기울기 **- 0.838, R2=0.127, p<0.05**), 그리고 **MCS** (기울기 **- 0.845, R2=0.141, p<0.05**)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.

결 론 :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유지 혈액투석환자의 우울증 유병율은 **27.3%**였으며,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연령 및 동반질환이 있었다.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측정되었으며, 우울증과 삶의 질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. 따라서 우울증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투석 환자의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.

Key Words : 만성신부전, 우울증, 삶의 질
CKD, Depression, QOL